

» 2009년 07월 07일 (화) 20:44

## 다이내믹 코리아의 모델, 일본의 민간외교관 코마츠 아키오 회장

일본 시마네 마쓰에 시에서 '코마츠 전기(주)'의 코마츠 아키오 회장은 '경영자들의 나눔의 철학을 통한 세계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우기 아키오 회장은 독립기념관에 100만엔을 헌금한 유일한 일본인 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인간.자연.과학연구소(Human.Nature.Science Institute)를 설립, 그의 주장을 실현해 가려한다.

한편, (주)한스월드의 전재천 회장은 중국.한국.일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철학교류를 통한 동양 삼국의 새로운 시대를 얘기한다.

그는 최근 경기도 화성인근에 한.중.일 삼국의 역사.문화.철학을 모아놓은 '문.사.철' 센터를 기획하고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한.일간의 문화전도사'인 것이다.

(일본 돗토리 한.일 우호공원에서 아키오 회장/좌 & 전재천 회장/우)



최근 코마츠 아키오 회장은 전재천 회장이 기획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의 종합테마 관광지내 일본의 문.사.철 센터 건립을 위한 (가칭) 준비위원회장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일본 현지취재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 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